

# 소공동체 모임

천주교 산호세 성당

2005년 11월

소공동체 모임은 신자들의 기도 모임이며,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모임은 60분에서 90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집주인은 간단한 차를 준비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 모임 순서

소공동체 모임준비 : 중앙에 십자가와 그 옆에 성모상을 준비하고 촛불을 켜 놓는다.

어린이들이 여럿이 있으면 별도로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실도 준비한다.

개인 준비물 : 성서, 묵주, 기도서, 영적 필기도구 등등

1. 시작 성가: 415(사랑이 없으면)
2. 묵주 기도 봉헌: 반장은 미리 그날의 지향에 대해 알려준다. 5단을 봉헌한다.  
(새 성전이 마련될 때까지는 성전건축을 지향으로 바친다)
3. 성서 읽기: 루카 12,35-48
  - 그날 복음, 혹은 자유롭게 성서를 택할 수 있다.
  - 대표 교우가 큰 소리로 낭독한다.
  - 돌아가면서 1절씩 읽는다.
  - 잠시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닿는 구절을 마음에 새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4. 말씀 나누기
  - 말씀 나누기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말씀이 끝나면 '주님 영광 받으소서' 라고 기도한다.
  - 말씀 나누기는 토론의 장소가 아니기에 토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기쁜 마음으로 경청한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교우를 위해 기도한다.(화살기도)
5. 자유기도 봉헌: 빠짐없이 돌아가면서 개인의 기도를 봉헌한다.
6. 공동기도 봉헌: 가정, 자녀, 나라, 평화, 외교인 등 공동기도를 기도서에서 함께 봉헌할 수 있다.
7. 기타: \* 공지사항 - 새 성전 마련을 위한 기도를 정성껏 바치자.  
- 위령성월을 맞이해서 ?  
\* 다음 모임 결정
8. 주님의 기도: 서로 손을 잡고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
9. 마침 성가: 517(내가 절망 속에서)

## MEMO

성체성사와 교회의 관계에 관하여  
주교와 사제, 부제, 남녀 봉헌 생활자와  
모든 평신도에게 보내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의 회칙

###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ECCLESIA DE EUCHARISTIA)

13. 성찬례는 해골산의 희생 제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희생 제사이며, 단지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영적 양식으로 내어 주시는 것이라는 식의 일반적인 의미만을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요한 10,17-18 참조) 사랑하시고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선물은 무엇보다도 성부께 바치는 선물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우리를 위한,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한 선물(마태 26,28; 마르 14,24; 루가 22,20; 요한 10,15 참조)이지만, 무엇보다도 성부께 바치는 선물입니다. “그 희생 제사를 아버지께서는 받아 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필립 2,8) 당신 아드님의 전적인 자기 증여에 대한 보답으로 당신의 자부적(慈父的) 선물을 주셨으니, 이것이 부활로 불사불멸하는 새 생명의 보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당신의 희생 제사를 맡기심으로써,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와 결합되어 자신을 봉헌하도록 부름 받은 교회의 영적 희생 제사를 또한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와 관련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인 성찬의 희생 제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신적 희생 제물을 하느님께 바치며, 자기 자신을 그 제물과 함께 봉헌합니다.”

14. 그리스도의 파스카는 그분의 수난과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축성에 이어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라고 하는 신자들의 응답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찬의 희생 제사는 구세주의 수난과 죽음의 신비뿐만 아니라 그분의 희생의 정점인 부활의 신비도 드러냅니다. 이것은 살아 계시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체성사 안에서 “생명의 빵” (요한 6,35. 48), “살아 있는 빵” (요한 6,51)이 되시는 것과 같습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은 새로 입교한 신자들에게 성체성사는 부활 사건을 그들의 삶에 적용시킨다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시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날마다 새롭게 부활하십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치릴로 성인은 또한 거룩한 신비에 동참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생명을 얻으셨음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것” 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 루가 12,35-48-

제자들은 혼인잔치에서 돌아온 신랑에게 시중드는 사람들,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 기다리는 종들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밤중이나 새벽은 어두움을 전제로 하기에 더 철저한 경계가 필요한 시간이다.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준엄한 말씀이다.

41-48절은 준비를 못한 경우가 강조되고 하느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 준비하지 않은 자들의 결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것을 돌려주어야 하며 많이 맡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내어 놓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준비하고 있어야 하겠지만 특히 다른 이들을 돌봄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해당하는 책임을 묻게 된다는 말씀이다.

의무에 대한 셈을 바쳐야 한다는 것은 행동에 특별한 신중성을 요구한다.



스스로 그렇게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우리 모두는 ‘주인’ 이 따로 계신 몸이다. 그러니 언제나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사람의 아들이 오실 날’ 은 물론 세상 종말의 날을 가리키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주인에게 받았던 목숨을 도로 내놓는 날’ 이기도 하다. 세상에 한 가지 확실한 것과 한 가지 불확실한 것이 있는데 확실한 것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이요, 불확실한 것은 그 죽는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의 삶을 네 가지 꼴로 나눌 수 있겠다.

- ① 주인이 따로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언제나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또는 살고자 애쓰는)사람
- ② 주인이 따로 계심을 알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만 그대로 살지 않는 또는 살고자 애쓰지 않는 사람
- ③ 주인이 따로 계심을 알지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 ④ 주인이 따로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①은 행복한 사람이요(43절), ②는 매를 맞아도 많이 맞을 사람이요(47절),  
③과 ④는 매를 맞되 덜 맞을 사람이다(48절).

### <나눔>

1. 지금 주님이 당신을 찾아오신다면 당신은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2. 주인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또 그 뜻을 채워드리려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 여보게!

늙은이가 되면 설치지 말고  
미운 소리, 험뜯는 소리, 그리고 군소리랑 하지도 말고  
조심조심 일러주고 알고도 모르는 척 어수룩하소.  
그렇게 사는 것이 편안 하다오

이기려 하지 마소, 져 주시구려.  
한 걸음 물러서서 양보하는 것,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랴오.

돈돈 욕심을 버리시구려.  
아무리 많은 돈 가졌다해도,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것  
많은 돈 남겨 자식들 싸움하게 만들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많이 뿌려서 산더미 같은 덕을 쌓으시구려.  
언제나 감사함을 잊지 말고, 어디서나 언제나 고마워하오.  
그렇지만 그것은 걸 이야기

정말로 돈을 놓치지 말고 죽을 때까지 꼭 잡아야 하오.  
옛 친구 만나거든 술 한 잔 사주고,  
손자 보면 용돈 한 푼 줄 돈이 있어야  
늘그막에 내 몸 모두가 받들어 준다나,  
우리끼리 말이지만 사실이랴오.

옛날 일들일랑 모두 다 잊고, 잘난 체 자랑일랑 하지를 마소.  
우리들의 시대는 다 지나 갔으니, 아무리 버티려고 애를 써 봐도  
이 몸이 마음대로 되지를 않소.  
‘그대는 뜨는 해, 나는 지는 해’ 그런 마음으로 재내시구려.  
나의 자녀, 나의 손자, 그리고 이웃,  
누구에게든지 좋게 보이는 늙은이로 살으시구려.

명청하면 안 되오, 아프면 안 되오, 늦었지만 바둑도 배우고,  
기(氣) 체조도 하시구려, 아무쪼록 오래 살으시구려,  
내 떠나고 나면 내 또한 무슨 이름으로 남을 것인가

한 생애란 지나고 보면 짧은 것,  
이름도 없이 낙엽으로 뒹구는 날까지  
고운 노래 하나쯤 부르다 가리니

친구여, 내일은 나에게 고운 노래 하나쯤 가르쳐 주게나  
내가 자네를 기억하고, 자네가 나를 기억하다가  
우리 모두 떠나고 나면, 고운 노래 하나쯤 남아  
세상 사람들 오래오래 기억했으면 좋겠네.